

# 東大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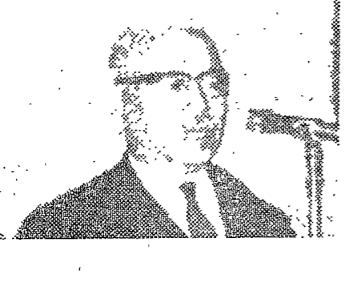
發行人 金東益 社址 東大新報社 3街26 電話交換 3130-9 本社直電 849 每週木曜日發行

今周一言  
 最近의 學界 發展은 如何의 前途를 示하고 있는가? 學界의 發展은 國家의 發展과 密接한 關係를 有하며 國家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祝  
 부친인인인인 2513주년  
 東國大學校 開校 64주년  
 東大新聞 社員 一同



## 總長·金東益



金東益 總長은 東國大學校의 發展을 爲한 努力을 續續히 하고 있다. 그는 大學의 教育을 革新하고 國民의 教育을 普及시키는데 努力을 하고 있다. 그는 大學의 發展을 爲한 努力을 續續히 하고 있다. 그는 大學의 教育을 革新하고 國民의 教育을 普及시키는데 努力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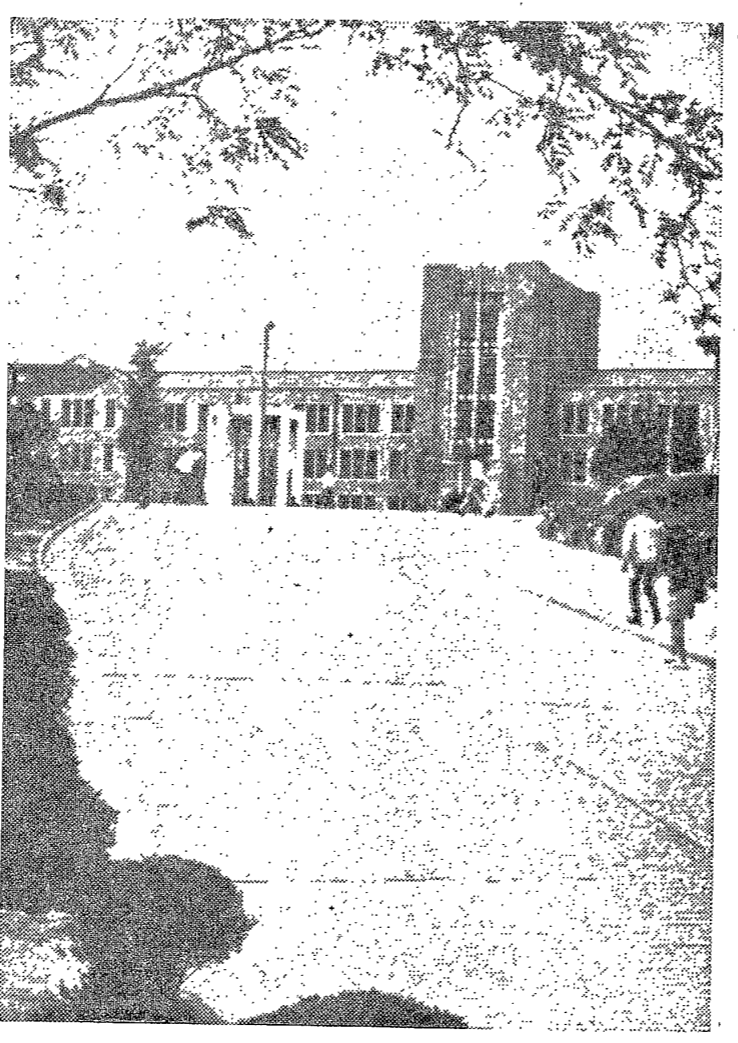
## 開校64주년에 부치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 大學의 革新 불교 理念을

### 實的向上에 主體 형성 基요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 未來는 大學 向上에 달려

### 항상 새롭게 創造的 努力을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大學의 發展은 國民의 教育을 基로 한 發展인 것이다.

### 보리수

보리수 (Borinoo) is a publication or service mentioned in the advertisement. It likely provides news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university or the community.

## 그 말씀을 열면 가슴마다 뜨거운 意志를

그 말씀을 열면 가슴마다 뜨거운 意志를. This is a collection of testimonies or statements from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expressing their dedication and passion for the university and their studies.

# 祝展

飛

동국대학교 개교64주년

## 동국대학교동창회

회장 백성욱  
 부회장 홍봉래  
 부회장 최희구  
 부회장 유근창

부처님오신날 제2513주년

저축하는 사람마다 행복주는  
 한일은행...한일적금

## 한일은행

퇴계로지점

지점장 문창규

內的自覺과 中興會

開校祝詞日佛蘭口內의 自覺
開校祝詞日佛蘭口內의 自覺
開校祝詞日佛蘭口內의 自覺

에 세 이 大學 教授 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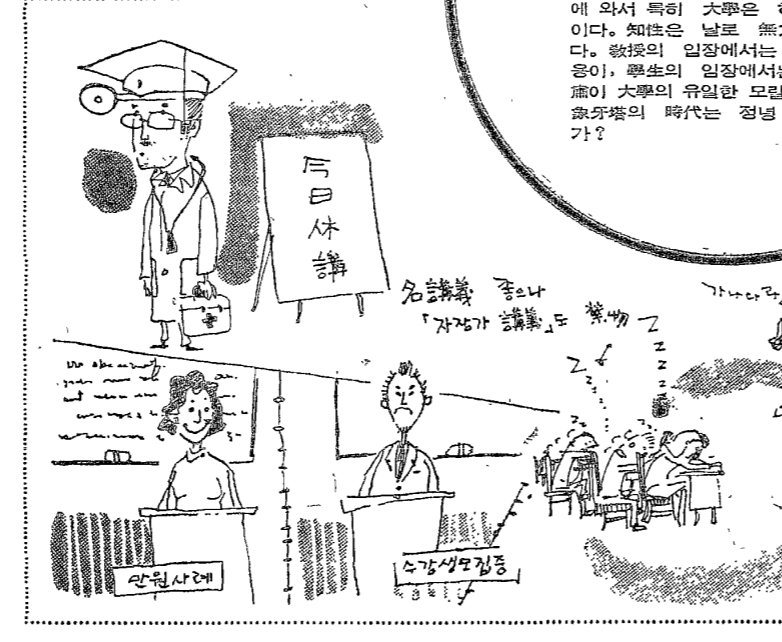


韓 相 範

「韓相範」의 時代
「韓相範」의 時代
「韓相範」의 時代

大學과 學生의 關係

大學과 學生의 關係
大學과 學生의 關係
大學과 學生의 關係



12세기, 교수휴강 막기 위해 「벌금제도」도
12세기, 교수휴강 막기 위해 「벌금제도」도
12세기, 교수휴강 막기 위해 「벌금제도」도

大學生의 상징은 知性과 양심

大學生의 상징은 知性과 양심
大學生의 상징은 知性과 양심
大學生의 상징은 知性과 양심

高年강사의 功績

高年강사의 功績
高年강사의 功績
高年강사의 功績

女性교수 功績

女性교수 功績
女性교수 功績
女性교수 功績

名講義·名教授

名講義·名教授
名講義·名教授
名講義·名教授

休講의 代價

休講의 代價
休講의 代價
休講의 代價

「미니」講義

「미니」講義
「미니」講義
「미니」講義

大學生의 象徴

大學生의 象徴
大學生의 象徴
大學生의 象徴

東國의 傳統

東國의 傳統
東國의 傳統
東國의 傳統

기반다져 學風의 方向 설정

國內初有의 研究기관으로 出發
國內初有의 研究기관으로 出發
國內初有의 研究기관으로 出發

인양음악예술학원
인양음악예술학원
인양음악예술학원

Esquise
Esquise
Esquise

美林핸드백
美林핸드백
美林핸드백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구두약의 선택에
구두약의 선택에
구두약의 선택에





# 佛敎의 현대적意義

徐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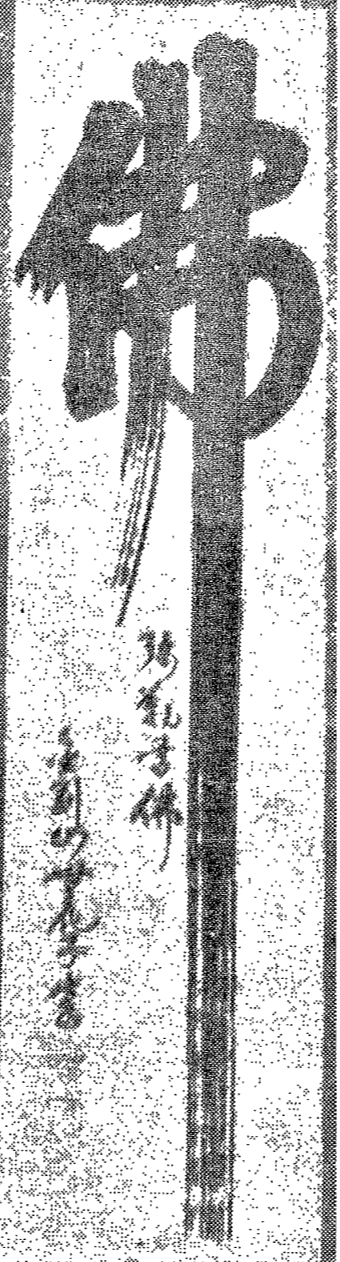


## 主體자각으로 일체 과학 現代이 끌고 갈 唯一한 精神

우리는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아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실망과 회의에 빠진다. 과학이 가져다 준 편리함은 때때로 인간성의 상실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과학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과학을 대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佛敎'에 있다. 佛敎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佛敎의 가르침은 과학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이 과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佛敎의 '일체'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과학이 추구하는 '일체'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의 발전을 막으려 하지 말고, 佛敎의 정신을 가지고 과학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을 잃지 않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佛敎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佛敎의 主體자각으로 일체 과학 現代이 끌고 갈 唯一한 精神



佛敎의 主體자각으로 일체 과학 現代이 끌고 갈 唯一한 精神

## 佛敎와 휴머니즘

佛敎의 가르침은 휴머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 휴머니즘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佛敎의 가르침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佛敎의 가르침은 휴머니즘과 일치한다. 佛敎의 '일체'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휴머니즘의 '인간성'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제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휴머니즘을 실천해야 한다.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佛敎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휴머니즘을 실천해야 한다.

## 佛敎의 敎說과 科學의 生成說

洪庭植



佛敎의 가르침은 과학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아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실망과 회의에 빠진다. 과학이 가져다 준 편리함은 때때로 인간성의 상실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과학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과학을 대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佛敎'에 있다. 佛敎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佛敎의 가르침은 과학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이 과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佛敎의 '일체'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과학이 추구하는 '일체'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의 발전을 막으려 하지 말고, 佛敎의 정신을 가지고 과학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을 잃지 않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佛敎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佛敎는 人間 中心의 宗教 善의 극복으로 愛의 人類공동체 구현

佛敎의 가르침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佛敎의 가르침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佛敎의 가르침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佛敎의 가르침은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이제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佛敎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佛敎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관 I.L.I 학**

◎美國人會話(初·中·上)  
◎日本會話(初·中·上)  
◎佛敎會話(初·中·上)  
◎佛敎會話(初·中·上)  
◎佛敎會話(初·中·上)

◎時英會話(初·中·上)  
◎時事會話(初·中·上)  
◎時事會話(初·中·上)

장소: 중로 2가 네거리  
전화: 311-1817

**國語日語**

◎國語會話(初·中·上)  
◎日語會話(初·中·上)  
◎國語會話(初·中·上)  
◎日語會話(初·中·上)

장소: 중로 2가 네거리  
전화: 311-1817

**發 祝 展**

동국대학교 개교 64주년

**명도정형의원**

의학박사 김형정

◇성형외과 ◇미용외과

서울중구명동2가32-1  
TEL 6957-4333

**미스터 동국 컨테스트**

東國大學 體育部 贊助

남성미를 과시하여 보십시오

1970년 5월 11일 오후 5시  
장소: 중로 2가

**사진藝術苑**

△중로 2가 인사동 75  
△과거대 아카데미 3018  
△東大本館 2층 寫眞室

代表 宋 生 南

**行政大學院**

1970년 5월 11일

장소: 중로 2가 네거리  
전화: 311-1817

**人專 醫 院**

장소: 중로 2가 네거리  
전화: 311-1817





